


보 도 자 료		 <b>한국해양수산개발원</b>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4. 7. 19. (금)/ 총 2매 (본문 2)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제전략연구본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li><li>- 최일선 실장(051-797-4727, ilsunchoi@kmi.re.k)</li><li>- 이슬기 전문연구원(051-797-4768, sglee84@kmi.re.kr)</li></ul>	
배포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li></ul>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a href="http://www.kmi.re.kr">www.kmi.re.k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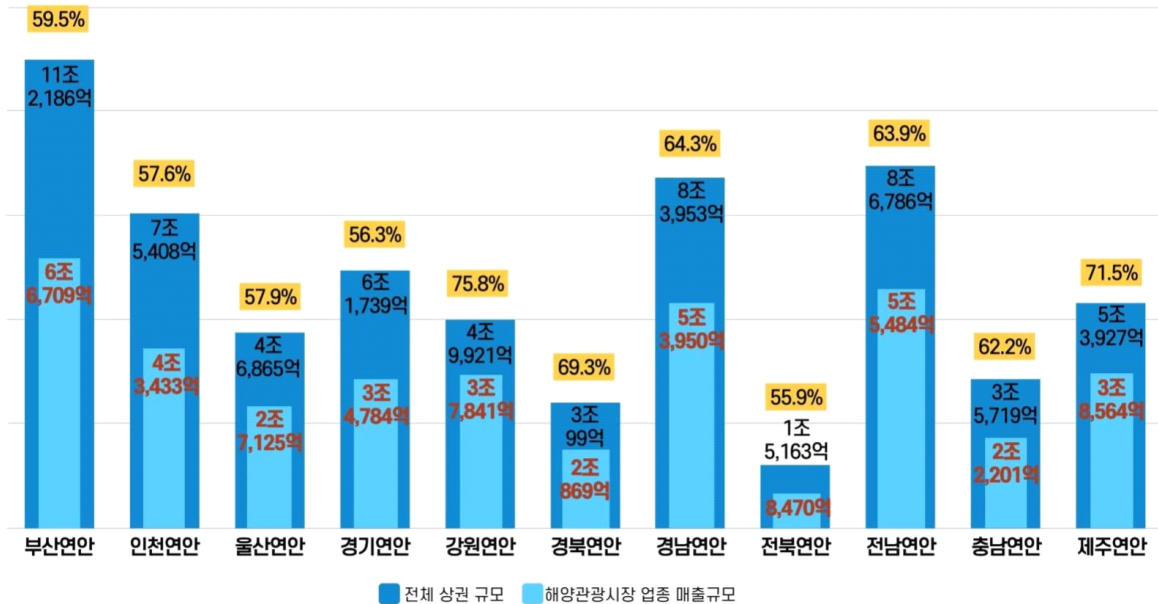
## KMI, 2023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40조 9,430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추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와 트렌드를 발표했다.

최일선 박사팀(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연안지역 상권규모는 65조 1,76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40조 9,430억 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바닷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6조 6,709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전남(5조 5,484억 원)과 경남(5조 3,95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상권규모 중 해양관광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75.8%, 제주가 71.5%, 경북이 69.3%로 나타나, 이들 세 지역은 연안경제에 해양관광 의존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연안지역별 외지인과 내지인의 해양관광 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68.4%), 충남(66.1%), 제주(60.2%)였으며, 내지인 소비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경남과 전남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안지역별 전체 상권규모와 해양관광시장 비중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2023년 기준 연안지역에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인 업종은 음식 업종으로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전체 해양관광 소비의 58.2%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조 5,564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수산물 업종의 매출액은 4조 5,606억 원으로 전체 음식 업종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업종의 매출액이 높은 지역은 부산(7,285억원), 강원(5,923억원), 경남(5,782억원) 순이다. 해양관광소비는 주로 40대(30.0%)와 50대(27.2%)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가족형 관광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카드매출 정보를 활용한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해양관광이 연안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KMI는 앞으로도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시장조사와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연안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이슬기 전문연구원(051-797-4768, sglee84@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